이재명, 광주서 프로게이머 체험…'e스포츠 지원' 관심

조선대 광주e스포츠경기장 방문
"지역 활성화 방안 부족 아쉬워"
"인프라 갖춘 광주서 많은 활용"
대선 후보 유일 공약 "적극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난 17~18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선대학교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경기를 직접 체험하며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 박정석 브리온e스포츠 단장, 천시아 캐스터(우송대 e스포츠학과 교수), 김세환 넥슨 팀장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e스포츠 LEVEL UP!' 간담회에서 "e스포츠를 약물 중독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전환돼야 한다"며 "광주처럼 e스포츠 경기장을 갖춘 지역에서 더욱 많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은 2020년 12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로, 1005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발로란트 세계대회와 전국장애인 e스포츠대회 등 대형 행사가 열리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2023년 기준 연평균 활용률은 22.6%에 그쳤다. 꾸준한 콘텐츠 유치와 지역 활성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지역 사회에 중요한 기회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e스포츠 공약을 내건 건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별도의 e스포츠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2022년 대선에서 지역 연고제 도입과 경기장 설립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게임특위 신설을 강조하며 "e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정책적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시아 캐스터는 "국내 e스포츠 시장은 단일 종목에 치우쳐 있고, 선수 등용문이 넓지 않다"며 "지역 리그 활성화, 프로팀 창단, 청소년 아카데미 설립 등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릎(배재민) 선수는 "은퇴 후 지도자나 다음 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싶지만,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며 "e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광주가 진정한 e스포츠 메카로 성장하려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 리그 유치와 지역 연고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연철 호남대 e스포츠학과장은 "광주 내 대규모 e스포츠 행사가 예산 부족과 게임사 협의 지연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색깔'을 담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게임사·방송사의 협력이 있어야 실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조승래·강유정 게임특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 게임 수출액이 12조 1402억원에 이르렀고, 아시아 주요 게임 대회에서 철권, 스트리트파이터, 포켓몬, 배틀그라운드 등 11개 종목이 정식 채택됐다"며 "e스포츠 지역 리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인책과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정석 단장의 안내를 받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 블리츠크랭크를 선택해 직접 플레이를 체험했다.

약 5분간 게임을 진행한 뒤 "포기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다.

이 후보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단축)키를 못 외우겠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민주당, 광주 5개 구청별 '우리동네 공약' 발표

지역 수요에 맞춤형 공약 제시
구청별 5~7개 핵심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우리동네공약을 확정하고 19일 광주지역 5개 구청별 공약을 공개했다.

우리동네공약은 민주당이 각 지역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내놓았다. 광주 구청별로 핵심 현안들이 고르게 공약에 반영됐다.

동구는 문화예술 치유의 정원(무등산 H 파크)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글로벌 명품 문화관광타운 조성, 원도심 글로벌 인공지능(AI) 창업·실증밸리 조성, 도심직접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선교저수지 융복합 호수공원 개발 지원 등 5개 공약이 포함됐다.

서구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신속 완성, 양동시장 전통상권 재도약 프로젝트 지원, 영산강(광암교~서창교) 수변자원품은 관광생태복합벨트 조성, 서창동 침수 안심도시 전환사업,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검토,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등 6개가 반영됐다.

남구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모색, 남구 다목적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도로 개설, 청소년 E-힐링 유니버스 조성, 무등·군분로 상권 르네상스 포로젝트, 광주 전통·문화·예술 밸리 조성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북구는 AI산업 국가시범도시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관문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예술교육기관 이전·문화시설 유치 지원, 본촌산단 이전 및 공공·첨단의료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안전인증센터 건립, 광주~대구 달빛철도 광주선 단계적 지하화 등 7개를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중심 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광주송정역세권 경제문화복합허브 조성, 마한역사문화권 문화관광도시 조성, 도심하천(풍영정천·장수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김치관광 자원화를 위한 광주김치촌 조성, 구 도심권 합류식 하수처리시설 분류식 개선, 첨단 자전거특화마을 시범지구 조성 등 7개가 공약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산갑)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약을 확정했다"며 "지역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